

한국의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일본의 결혼식과 한국의 결혼식에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꽤 가깝게 지내는 사람만을 초대하지만 한국은 그냥 아는 사람도 초대합니다. 제 생각으로 그 이유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결혼을 알리는 뜻도 있고, 게다가(또) 그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도 일 것입니다.

일본은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닌(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 다른 사람의 참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은 큰 실례로 상당히 곤란한 일이지요. 한국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참석하게 되면 고맙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초대하는 것이 어쩌면 실례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무척 바쁜 사람이든가 몸 상태가 좋지않은 사람이다든지 왕래가 뜸한 사람에게는 초대장을 보낼까 보내지 말까 하고 망설입니다. 초대장을 잘못해서 빠뜨리고 보내지 않더라도 소문을 듣고서 멀리서도 옵니다. 그런 일이 일반적입니다. 일본과 상당히 다르죠. 일본은 결혼 전에 초대할 사람들에게 결혼식날 참석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자리(좌석)이라든가 음식을 준비한다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합니다.

남은 음식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조금은 시끌벅적한 결혼식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조용하게 치리지요.

두 나라 결혼식 중에 어느 것이 더 낫다, 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식도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도 일본도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서양식 결혼을 많이 봅니다.

요즘은 마음의 여유도 시간의 여유도 없어 보입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그저(단지) 30분 정도의 간단한 예식을 마칩니다. 형식이 간단하여 편리하지만 성의가 없어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전통결혼식을 치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최근, 일본도 서양식으로 간소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